

지식정보사회에 있어서 讀書教育 활성화 방안*

Some Suggestions on Reading Education in the Knowledge-Information Society

변 우 열(Woo-Yeoul Byun)**

〈목 차〉

- | | |
|-----------------------------|------------------------|
| I. 서론 | V.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
| II. 독서교육의 현주소 | 1. 독서교육의 성격과 위치 정립 |
| III. 지식정보사회와 독서교육 | 2. 교과학습과 연계된 학습독서의 실시 |
| 1. 지식정보사회에 있어서 독서의 특성 | 3. 독서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동기부여 |
| 2. 지식정보사회에 있어서 독서교육의 내용과 방향 | 4. 독서환경 조성 |
| IV. 독서와 학습능력 | 5. 독서흥미 유발 |
| | VI. 요약 및 결론 |

초 록

독서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독서를 생활화하는 것이다. 독서의 생활화는 독서습관을 형성하여 독서가 일상생활의 일부분으로 정착되는 것을 말한다. 독서가 생활의 일부분으로 정착된다는 것은 모든 행위가 하루 아침에 단 한번의 시도로 습관화될 수 없는 것과 같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독서 생활화는 모든 학습과 마찬가지로 독서에 대한 즐거움과 흥미, 동기부여, 연습과 강화, 충분한 보상 등이 주어져야 독서생활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식정보사회에 있어서 독서의 특성을 살펴 본 다음에 학교교육에서 독서교육이 성공을 거두기 위한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주제어: 독서생활화, 독서습관, 독서교육

Abstract

The final purpose of reading education is to have the students get habitation of reading. 'Habitation of Reading' means that students acquire a habit of reading and the habit has formed as a part of their daily lives. A habit of reading can not be formed as a part of life by only one day's reading as all kinds of actions can not be formed as habits by only one try.

We can expect that students will acquire 'habitation of reading' only when they have joy and interests in reading, motivation to read, practice and reinforcement of reading and satisfactory rewards.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reading in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society were investigated and some ways to encourage successful reading education in schools were suggested.

Key Words: habitation of reading, reading habit, reading education

* 이 논문은 2003년 1월 17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 공주대학교 문헌정보교육과 교수(wybyun@kongju.ac.kr)

• 접수일 : 2003. 1. 10.

I. 서론

독서교육의 영역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첫번째 영역은 고대부터 이어져 온 독서교육의 형태로 고전적인 독서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영역은 독서에 의해서 그 사람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가치관을 바르게 하여 인격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독서교육이다. 또 한가지 영역은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독서교육으로 일반적으로 이것을 교과학습을 위한 독서 즉 학습독서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두가지 독서교육의 영역을 명백하게 구분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또한 어느 영역에 중점을 두어 지도할 것이냐 하는 것도 어느 한가지 영역을 소홀히 할 수 없으므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인간의 정서순화와 가치관확립을 통하여 인격형성에 이바지한다는 측면의 독서는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 즉 인간성 상실과 가치관의 붕괴, 황금만능주의 사고의 팽배, 한탕주의 사고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학습독서는 지식정보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정보와 지식의 변화속도가 대단히 빠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교육현장에서 학습독서를 통하여 평생교육의 기초를 다져 나가야 하는 것이다. 현대는 생활을 위한 독서, 생존을 위한 독서, 지식획득을 위한 독서가 독서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독서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생활의 일부이며 생활 그 자체인 것이다.

따라서, 敎育現場에서는 이 두 가지 독서교육 영역중에서 어느 한가지도 소홀하게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양자를 적절하게 혼합한 형태로 독서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현장에서는 그 동안 독서교육을 형식적으로 비체계적으로 실시해 온 것이 사실이다. 입시위주의 교육과 지식편중의 교육으로 일관하여, 인간의 품성을 바로 잡는 인간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있거나 실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형식에 치우쳐 체계적이지 못하고, 학습방법을 가르쳐 평생교육의 기초를 다지기보다는 주입과 암기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독서교육을 통하여 정서순화와 가치관확립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좋은 책 한권의 독서가 때로는 한 개인의 일생을 변화시키고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 있을 만큼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지적 호기심이 강하고 감수성이 민감한 청소년 시기에 좋은 책을 읽도록 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하고 값진 경험이다.

특히, 인격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기의 독서는 청소년들에게 진정한 삶의 모습을 보여 주고, 올바른 삶의 세계로 인도해 주는 정신적인 행위인

동시에 소중한 정서적 체험이다. 왜냐 하면, 청소년시기의 독서에서 받은 강한 인상은 성인이 된 후에도 잊지 못하고 평생 신의 계시처럼 항상 마음속에 깊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지식정보사회에 있어서 독서의 특성을 살펴보고 독서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독서교육의 현주소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시작된 한국 현대교육사에 있어서 '독서교육' 문제는 그 필요성의 일반론에 의하여 초·중·고등학교 교육지침에서 매 학년도마다 강조되어 왔다. 즉, 보통교육에 있어 학생 독서의 필요성을 교육부는 「學校教育 運營指針」으로 또는 「讀書指導의 活性化 方案」이라는 장학지침을 통하여 강조하여 왔던 것이다. 그 결과 각 시·도 교육청은 앞을 다투어 독서교육에 열을 올렸으며, 교육부 내에도 1981년 독서지도 실무위원회가 구성되고, 1982년에는 「學生讀書指導 圖書目錄」을 초등학교용, 중학교용, 고등학교용의 3부분으로 나누어 발행하여 학교 독서교육에 있어서 길잡이가 될 선정도서목록을 제시하였으며, 독서지도 또는 독서교육에 관한 수 많은 연구물이 개인적으로 또는 학교별로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발표된 연구물들은 제대로 일반화되지 못한 채 '연구를 위한 연구'로 끝나고 말았음은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1992년 교육부가 교육의 국제화와 개방화에 대비하고 학교교육과 대학입시체도를 개선하고자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1996년 3월 1일 신입생부터 시행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국어교과의 과정별 필수과목으로 「독서」과목이 신설된 바 있고, 이어서 1997년에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2002년 3월 1일 고등학교 1학년부부터 시행되는 국어교과의 심화선택과목으로 「독서」과목이 신설되어 학교에 형편에 따라서는 「독서」과목이 개설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제6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독서」교과를 분석해 보면 독해와 문학교육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실정이며,¹⁾ 제7차 교육과정의 「독서」과목도 크게 다른 내용이 없다. 그나마,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는 이러한 독서과목 조차도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현재까지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진 독서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도 문학류 도서 일변도의 독서와 그 독후감 쓰기, 독서발표, 독서토론회가 독서교육의 전부인양 여기고 있으며, 지도시간 또한 HR시간 또는 CA시간을 이용하거나 보강시간을 통한 집단독서, 일제독서의 방식으로 진행될 정도의 수준이며, 이러한 수준 정도로 독서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다행이고 대다수 학교에서는 이렇게도 하지 않고 있다.

1) 邊宇烈, “高等學校 「讀書」教科에 관한 研究,” 도서관, 제49권, 제3호(1994 가을), pp.3-30.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4권 제1호)

지금까지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의 독서교육지침 시달과 장려로 인하여 많은 학교에서 독서교육이 이루어져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독서교육의 대부분은 ① 문학류 일변도의 책읽기와 독후감 작성에 급급하였을 뿐 독서의 개념에 기초하여 출발한 논리적인 지도가 되지 못하였고 ② 독서에 관한 지도가 비정규 교과시간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이루어 졌을 뿐 정규교과목의 하나로 설정되어 전문지도교사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실시되지 못하였으며 ③ 일반교과 담당교사와 관련을 맺지 못하고 대부분 독후감을 쓰기 위한 문학류 읽기에 그치고 각 교과학습과 연계시킨 학습방법으로서의 독서와 함께 도서관을 이용한 학습자료의 검색 및 활용법, 독서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은 물론 독서력의 효율적인 개발 등 전반적인 독서교육에 관하여 종합적인 지도가 미흡하였다고 지적할 수 있겠다.²⁾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도서관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시책에 힘입어 시·도교육청별로 독서교육 시범 학교를 지정하여 독서교육 정착을 위한 학습독서, 독서여행, 독서퀴즈, 독서퍼즐, 독서토론, 다양한 독서감상 표현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청소년기는 일생을 통하여 가장 지적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독서에 대한 훈련도 이 시기에 집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그러나 정작 청소년기의 핵심인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도서를 선정할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며 독서하려 들지도 않는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입시라는 제도에 얽매어 자유롭게 독서할 시간마저 빼앗기고 있어 독서교육 부재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독서교육 내용과 방법을 과감히 탈피하여 교과학습과 연계시킨 학습방법으로서의 독서 즉 학습독서의 방향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온 독서교육을 초·중·고등학교에서 모두 정규 교과목화하여 전문지도교사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독서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겠다.

Ⅲ. 지식정보사회와 독서교육

1. 지식정보사회에 있어서 독서의 특성

지식정보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사회이다. 과거에는 노동, 자본, 토지가 산업의 중요한 요소였으나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이러한 요소보다 지식과 정보가

2)朴容杓, “高校 讀書教育 이대로 둘 것인가 : 획기적 방향전환이 시급하다,” 출판저널, 제7호(1987. 10. 20), p.41.

더욱 중요한 재화로 부각되고 있다. 지식정보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대량으로 생산되고, 전달되어 지식과 정보가 사회와 국가의 모든 활동을 좌우하고 있는 시대이다. 인류의 지식과 정보는 매 5년마다 두배로 증가하고 있어 실로 우리는 정보의 홍수라기 보다는 정보의 해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지식정보사회에서는 모든 개인이나 조직은 물론 기업이나 국가까지도 지식과 정보를 등한시해서는 살아 남을 수 없으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입수하여 활용하는 능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낙오자가 되어 버린다. 지식정보사회에서는 과거의 자본과 노동의 관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수학공식, 화학분자식 하나를 더 외울 수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컴퓨터와 뉴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여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개개인의 우열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하여 독서자료와 계속해서 접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지식과 기술발전의 속도가 대단히 빠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여 활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회 즉, 평생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회이다.

독서와 관련하여 지식정보사회의 또 다른 특징은 매체의 다양화 현상 즉, 다양한 독서자료의 출현을 들 수 있다. 기존의 인쇄매체로 대표되던 독서자료는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그래픽, 애니메이션, 소리, 말, 비디오, 동영상 등 여러 가지 유형의 매체가 통합되는 이른바 다매체 독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독서환경은 하이퍼텍스트(hypertext), 하이퍼미디어(hypermedia), 멀티미디어(multimedia) 등의 세가지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개념들이 통합적으로 적용된 새로운 독서공간을 웹(web)이라고 할 수 있다.³⁾ 웹은 첨단 매체가 총체적으로 결합되어 다양한 활동을 시도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으로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해 주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독서환경에서는 모든 정보가 하이퍼텍스트의 원리에 기초하여 저장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주도적으로 자유롭게 정보를 탐색하고, 이용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교류할 수 있는 체제가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태어난 것이 이른바 전자책(electronic book)이다. 전자책은 웹사이트에서 바로 컴퓨터로 책을 다운로드(download) 받아 열람할 수 있고, 이용자가 주인공이 되는 책을 만들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출판사도 등장하였다. 그리고, 지식이나 정보를 CD-ROM과 DVD(digital video disk)에 담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설을 읽으면서 배경음악을 듣고, 역사책을 읽으면서 관련 비디오를 볼 수도 있게 되었다.

3) 김미량, “정보화 사회의 독서매체 확장을 위한 一考,” 독서연구(한국독서학회), 제5호(2000), p.69.

이러한 다매체 독서환경은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인류가 사용한 서사기록매체는 짐승의 뼈, 점토판(clay tablet), 석판, 수피, 나뭇잎, 목판, 양피지(parchment), 종이의 시대를 거쳐 영상매체로 발전하였으며, 이제는 文字, 음성, 화상까지 모두 기록할 수 있는 전자매체에 지식과 정보를 기록하고 있다. 독서는 책을 읽는 것이라고 할 때 책(冊)이라는 글자는 고대 중국에서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에 얇은 대나무 조각이나 나무 조각에 글자를 새기거나 쓴 것을 엮은 모양을 본따서 만든 상형문자이다. 그러나 우리는 책이라고 하면 대나무나 나무 조각에 글자를 새기거나 쓴 것을 연상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에 지식이나 정보를 기록한 문헌자료로 인식하고 있다.

결국, 인쇄매체와 영상매체 그리고 전자매체는 지식과 정보를 담는 그릇만 다를 뿐이며,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지식과 정보의 내용은 이용자에게 모두 소중한 것이다.

따라서, 독서를 여러 가지 매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행위라고 본다면 독서자료의 종류와 형태만 다양화되었을 뿐이며 독서행위 그 자체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2. 지식정보사회에 있어서 독서교육의 내용과 방향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다른 어떤 재화보다도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되고, 지식과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지식과 정보의 수명 또한 점차 단축되고 있다. 그리고, 이용자의 정보요구는 세분화되고 있으며, 지식과 정보를 단순하게 수용하기보다는 능동적인 이해를 요구하고 있고, 지식과 정보를 표현하는 매체의 형태도 다양하게 되었다.⁴⁾ 이러한 여러 가지 지식정보사회의 특성은 독서교육에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먼저, 지식과 정보의 폭발적인 증가와 대량전달의 측면을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교사는 학생들에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모두 암기하도록 하거나 주입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과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고 활용하여 체계화하는 능력 즉, 학습방법(how to study)을 학습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독서교육의 내용은 학습방법의 학습과 문제해결능력을 길러 줄 수 있도록 정보의 처리과정에 맞추어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학습과정에 있어서 지적 활동을 분석해 보면, 자료와 정보의 검색, 평가, 선택, 활용, 정보의 재창조라고 하는 정보처리과정을 거치게 된다.⁵⁾

따라서, 지식정보사회의 독서교육의 내용은 정보처리과정에 맞추어 문제해결에 필요한

4) 이재승, “정보화 사회와 독서교육,” 독서연구(한국독서학회), 제5호(2000), p.87.

5)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利用指導委員會 編. 自學能力を高める 學校圖書館の利用指導(東京: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1982), p.33.

지식과 정보를 선택, 활용, 정리하는 능력을 길러 주어 모든 교과학습에 필요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켜 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이용자의 정보요구가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미세화 되고 있고, 지식과 정보의 수명이 점차 단축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독서교육의 성격을 살펴보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식과 정보 중에서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적절하게 선택하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문제해결에 직접 도움이 되는 자료와 그렇지 않은 자료를 식별하여 자신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자료를 선택하여 활용하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 독서교육의 중요한 내용이 되고 있다.

한편, 지식정보사회에서는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지식과 정보의 수명이 점차 단축되고 있다. 과거에는 학교교육에서 습득한 지식과 정보를 학교를 졸업한 후 오랜 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학교를 졸업한 후 불과 몇 년 사이에 전혀 쓸모없는 지식과 정보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독서교육에서는 지식과 정보의 유용성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과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적절하게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식정보사회에서는 매체가 다양화되어 멀티미디어화 되어 가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종이에 의존하는 인쇄매체가 주된 자료였으나 이제는 비디오, 텔레비전 등의 영상매체와 CD-ROM, 컴퓨터의 웹사이트 등의 전자매체가 일반화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혁명과 더불어 전자책의 출현이 출판계의 판도를 바꾸어 놓고 있다. 그러므로 독서교육에서는 각 매체의 특성을 자세히 이해하여 다양한 매체들이 전달하는 지식과 정보를 자신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식정보사회의 독서교육은 정보처리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찾아내어 활용하고 정리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IV. 독서와 학습능력

독서능력이 학업성적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실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케스웰(H. L. Caswell)에 의하면 학습부진의 20%정도는 독서력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있다.⁶⁾

6) H. L. Caswell, "Non-Promotion in the Elementary School," *Elementary School Journal*, Vol.33(1933), pp.644-647.

그리고, 1926년 퍼시발(Walter P. Percival)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초등학교 1학년은 진급의 문제중 99%, 2학년은 90%, 3학년은 70%가 독서능력의 부진이 원인이 되고 있다.⁷⁾

또한, 이영석, 이은진의 연구에서도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독서능력은 국어 학업성적에 40%, 영어 학업성적에 29%, 수학 학업성적에 22%를 예언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⁸⁾

그리고, 리(Dorris M. Lee)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4학년 이상의 학년에서 독서능력이 4학년 기준보다 낮으면 다른 교과 성적이 떨어진다고 하고 있다.⁹⁾

한편, 홍용희, 채선희가 2000년 8월부터 5개월간 전국의 만 4~6세 유아 1,366명을 대상으로 창의성 검사를 한 결과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의 창의성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미술, 블록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창의성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독서를 많이 하는 아이들의 창의성 평균점수가 31.57점인데 비하여 미술과 블록놀이는 각각 29.6점과 28.23점이었다. 책을 읽지 않는 유아의 창의성 점수는 25.93점으로 평균치보다 1.67점 낮았고, 한달 평균 31-60권을 읽는 아이들의 점수가 30.12점인데 비하여 30권 이하를 읽는 유아는 27.61점으로 나타나 책을 많이 읽을수록 창의성 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컴퓨터(24.56점)나 학습지(25.85점)에 오래 매달리는 아이들은 창의성 점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¹⁰⁾

눈을 해외로 돌려보면, 영국은 오래 전부터 아이들에게 책을 읽도록 하는 운동을 펼쳐 왔는데, 버밍햄에서는 1992년부터 Book Trust단체의 도움을 받아 Book Start 운동을 벌였다.¹¹⁾ 이 운동은 어린 시절부터 독서습관을 기르기 위한 것으로서 아이들의 읽기,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상상력을 키워주기 위한 것이다.

1997년 버밍햄대학 교육학부의 베리 웨이드 교수는 이 운동에 참여한 아이들과 참여하지 않은 아이들의 학업능력의 차이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다니는 2년제 과정의 학교에 입학한 다섯 살 반정도 된 41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말하기와 듣기, 읽기, 쓰기, 계산능력, 형태 및 공간지각 능력을 측정한 학업성취도 검사에서 <그림 1>과 같이 전 영역에서 Book Start 운동에 참여한 아이들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7) Walter P. Percival, "A Study of the Causes and Subjects of School Failure," *Unpublished Doctorate Dissertation*.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1926 (Arthur I. Gates, *Improvement of Reading*, 3rd ed. New York : Macmillan, 1947, p.2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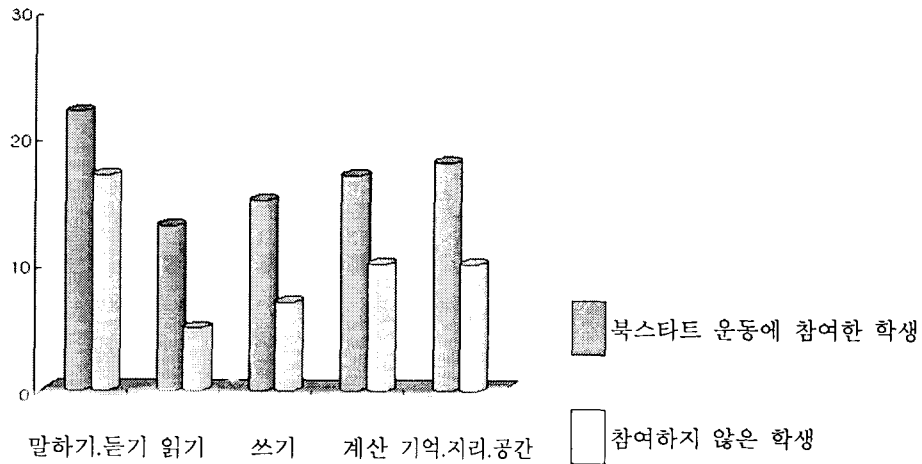
8) 李榮碩, 李恩珍, "讀書力과 學業成就와의 關係," 한국행동과학연구소연구노트, 제4권, 제5호(1975. 5), p.40.

9) Dorris M. Lee, "The Importance of Reading for Achieving in Grade Four, Five and Six," *Teachers College Contribution to Education*, No. 556. New York :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1933(Arthur I. Gates, *Improvement of Reading*, 3rd ed. New York : Macmillan, 1947, p.2에서 재인용)

10) <http://www.donga.com/fbin/searchview?n=200105100451>

11) KBS, TV 책을 말하다 : I 편 그들은 책을 읽었다 (2001년 3월 3일 방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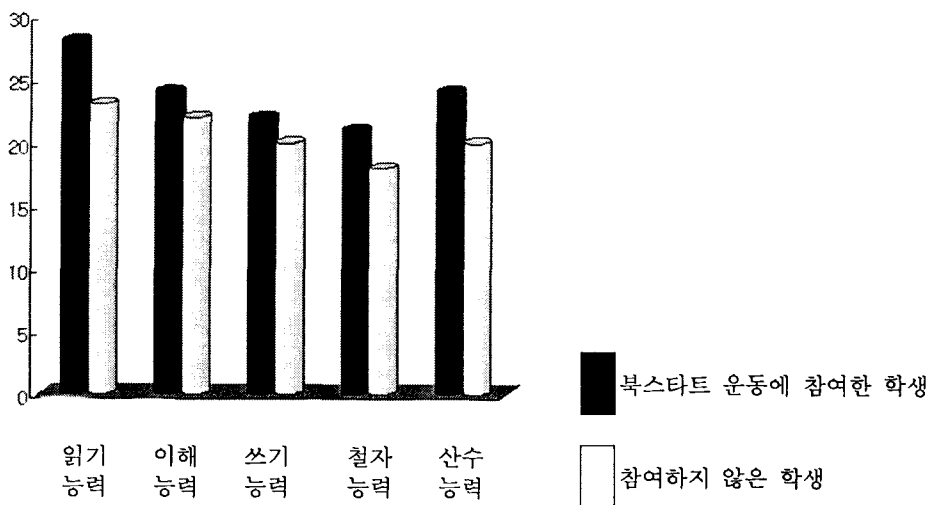
5살 각 그룹 41명 대상 조사(1997년)



<그림 1> 북스타트 운동 참가 어린이들의 기초학습능력

웨이드 교수는 2년후인 1999년에 다시 졸업할 무렵의 아이들 43명을 대상으로 읽기 능력, 이해 능력, 쓰기 능력, 철자법, 산수영역으로 나누어 학업성취도를 측정한 결과,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역시 Book Start운동에 참여하였던 아이들이 모든 영역에서 우수하였다.

7살 각 그룹 43명 대상 조사(1999년)



<그림 2> 북스타트 운동 참가 어린이들의 학업능력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독서능력이 아이들의 창의성과 학업성취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V.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독서교육 활성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독서를 습관화하여 독서가 생활의 일부분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독서의 생활화는 독서를 반복적으로 행하여 독서가 쉽고 친숙해져서 독서습관이 자연스럽게 몸에 밴 결과 독서행위가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행해지게 되어 독서가 일상생활의 일부분이 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독서의 생활화는 여러 가지 일상생활의 행동양식이 습관화되는 것과 같이 형태화, 연습과 강화, 동기부여의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¹²⁾

이러한 독서 생활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상생활 중에서 독서생활만을 분리해서 습관형성을 도모한다는 것은 의미도 없고, 효과도 없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독서는 학생들의 일상생활 속에 무리가 없는 자연스러운 형태로 자리잡아 일반적인 생활습관 속에서 독서습관이 형성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독서는 수면, 식사, 세면, 학습, 놀이, 가사, 심부름, TV 시청 등과 같은 일상생활의 일부분으로서 위치되어야 하며, 생활지도의 하나로서 지도하여 독서가 생활 속에서 중요시되어야 한다. 왜냐 하면, 독서활동은 학생의 마음이나 머리 그리고 전반적인 신체적인 조건과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의 생활전체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학생의 생활전체를 하부구조로 본다면, 이 하부구조를 통제하는 상부구조로서 독서생활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¹³⁾

그러면, 학교교육에서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1. 독서교육의 성격과 위치 정립

학교교육에서 독서교육은 어떤 특정 교과목이나 특정활동에 한정된 교육으로 성격을 규정해서는 안된다. 물론, 독서교육을 교과학습과 연계시키거나 생활지도와 연계시키는 등 여러 가지 영역과 연계시켜 독서교육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방안은 가능하다. 예를 들면, 독서교육을 사회교과와 연계시켜 사회성 지도에 중점을 둘 수도 있고, 도덕교과와 연

12) 邊宇烈, “讀書의 生活化 方案,” 한국비블리아, 제11권, 제1호(2000. 6), p.34.

13) 讀書指導硏究會, 讀書指導事典(서울: 京仁文化社), 1982, p.307.

게시켜 생활지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독서교육을 특정 교과나 특정 활동의 하부영역이나 일부분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독서교육을 국어교과의 하부영역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실정이다. 흔히들 독서라고 하면 국어, 독서라고 하면 문학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독서교육을 국어교과의 하부영역으로 취급한다면 이것은 독서교육이 아니라 문학교육이 되어 버린다. 마찬가지로 독서교육을 도덕교과에 포함시키면 도덕교육이 되어 버릴 것이고, 독서교육을 사회교과에 포함시키게 되면 이것은 사회교육이 되어 버릴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교육에서 독서교육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가?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독서교육은 총론이 되어야 하고, 각 교과목의 교육은 각론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독서교육은 모든 교과목의 학습을 위한 교육으로 각 교과목의 학습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교과목에서 독서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각 교과목은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이 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활동을 교육이라고 전제한다면, 과학교육은 과학이라고 하는 교육내용을 학습함으로써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활동이고, 음악교육은 음악이라고 하는 기능교과의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모든 교과목은 독자적인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이 있기 때문에 특정 교과목에 독서교육을 포함시키게 되면 독서교육도 실패하고 교과교육도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독서교육을 특정 교과목에 포함시키는 관점이 아니라 독서교육의 바탕위에 각 교과목이 존재한다는 사고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즉, 독서교육을 많이 받고, 독서를 많이 한 학생이 각 교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독서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독서교육은 모든 교과목 학습을 지원하여 범교과의 학습능력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독서교육은 초등학교 중학년(3-4학년)까지 국어교과에 포함시켜 독서에 대한 기초적인 능력을 배양한 후, 초등학교 고학년(5-6학년)부터는 국어교과에서 독립시켜¹⁴⁾ 각 교과목의 교과내용을 분석하여 독서내용으로 삼아 각 교과목의 학습을 지원하고 문제 해결능력을 길러 주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독서교육은 언어적인 측면은 국어교과에서, 주제적인 측면은 각 교과목에서, 나아가 정보적인 측면은 문헌정보학의 영역이 서로 합쳐지는 거대한 영역이 바로 독서교육의 영역이 되어야 한다.¹⁵⁾

14) 朴鵬培, 國語科教育各論(서울 : 한샘, 1988), p.15.

15) 김득순, “학교 독서교육의 현황과 과제,” 학교 독서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서울 : 대한출판문화협회, 1998), p.22 (제14회 출판포럼)

2. 교과학습과 연계된 학습독서의 실시

학교현장의 독서교육은 교과학습과는 무관하게 문학도서를 위주로 한 독서일기 쓰거나 독후감 쓰기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그 결과 학생들은 독서라고 하면 곧 독후감 쓰기 숙제를 연상하고 있으며, 정규 교과목과는 관계없는 또 다른 부담 하나가 늘어나게 되었구나 하는 정도로 생각하여, 교과학습과 연계된 절실감이나 흥미를 상실한 채 독서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독서교육은 교육과정과는 무관하게 교양위주나 여가선용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교과학습을 마치고 난 다음에 여력이 있으면 독서하는 식의 여가활동 정도로 생각하여 교과학습 이외의 부산물로 취급되고 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국어과에 포함시켜 문학위주로 독서교육을 실시하여 국어성적에 약간의 점수를 반영하는 경우도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독서교육을 국어과에 포함시키게 되면 이것은 독서교육이 아니라 문학교육이 된다. 물론, 문학은 훌륭한 독서자료임에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문학은 다른 독서자료에 비하여 인간의 감정을 가장 잘 움직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삶 그 자체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학은 독서에 의한 도덕적 감명을 조사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¹⁶⁾ 그 결과 문학은 누구나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독서재료가 되었다.

그러나, 문학이 독서자료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 철학, 종교, 사회, 과학, 역사 등 다방면에 걸친 폭 넓은 독서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문학위주의 편협된 독서가 아니라 다양한 주제에 걸친 폭 넓은 독서를 실시하여야 하고, 형식적이고 비체계적인 독서교육이 아니라 교과학습을 직접 혹은 간접으로 원조해 줄 수 있는 독서교육 즉 학습독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학교현장에서는 독서교육을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확보하여 교과학습과 연계된 독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학습독서를 실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독서자료의 선정에 예로 들어 보면, 모든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교육과정을 직접 원조할 수 있는 도서를 선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과서에 나오는 서명, 인명, 주제명 등을 대상으로 도서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특별활동과 학교행사, 정서순화와 가치관 확립에 도움이 되는 도서들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독서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동기부여

모든 일이 보상과 동기부여가 따르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게 된다. 특

16) 阪本一郎, “讀書における 道徳的 感銘,” 讀書科學, 第2卷, 第4號(1958. 3), p.3.

히, 학습에 있어서는 동기부여가 학업성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높은 동기수준은 학업성취도를 높여 주며, 그 반대로 높은 학업성취도는 높은 동기를 유발한다.¹⁷⁾ 따라서, 효율적인 독서교육을 위해서는 독서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동기부여가 뒤따라야 한다.

학교교육에서 독서를 게을리 하면, 학업성취도도 낮고 문제해결능력도 저조하여 결국은 낙오자가 된다는 등식이 성립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등식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한 독서가 아니라 교육과정전개에 이바지하고 특별활동이나 학교행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독서 즉 학습독서의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결국, 독서를 열심히 하면 오히려 학습에 방해가 되고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면 아무도 독서를 하지 않을 것이다. 독서를 열심히 하면 학업성취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능력이 육성되어 사회생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 교과담당교사는 각 교과에서 선정된 도서를 읽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학생이 높은 학업성취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과학습을 전개하고 평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칭찬을 하거나 표창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하여 충분한 보상이 따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독서환경 조성

독서습관형성은 독서생활을 하는 장소인 가정, 학교, 사회의 독서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된다. 독자의 독서생활에 있어서 독서의 환경적인 조건은 자극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적인 자극을 주기 위한 독서환경은 독서장소와 각종 도서관 등의 요인, 그리고 독서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인 요인과 정신적인 요인 등으로 성립될 수 있다.

독서의 환경적인 조건은 독서능력이 발달하여 독서에 대한 즐거움과 흥미를 깨닫게 되는 초등학교 2학년 2학기에서 4학년까지의 시기와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독서능력이 발달하고 독서의 진가를 깨닫게 되는 중학교 2학년 후반기에서 고등학교까지의 시기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독서행동의 발달속도가 빠른 시기에 환경적인 자극에 가장 강하게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¹⁸⁾

따라서, 이러한 환경적인 조건을 정비하지 않고서는 독서교육의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러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먼저,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독서자료와 접할 수 있도록 독서자료를 풍부하게 비치해 두어야 한다. 예를 들면, 각 교과목에서 선정된 독서자료는 충분한 복본을 학교도서관에 구비하여 자유로운 독서가 가능하도록 독

17) 丁鍾鏞, 動機와 學習(서울 : 星苑社, 1991), p.7.

18) 金京一, 讀書教育論(서울 : 一潮閣, 1980), p.170.

서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항상 접촉하고 있는 부모, 형제, 친구, 교사 등과의 환경적인 인간관계를 만들어 환경적인 자극을 받도록 해야 한다.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서의 입수동기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친구, 교사, 부모, 형제 등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으며¹⁹⁾, 독서에 가장 강한 영향을 준 사람은 친구와 부모형제, 교사로 나타나²⁰⁾ 환경적인 인간관계가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성인의 독서습관과 태도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부모가 학교에서는 교사가 훌륭한 독서생활의 모범을 보여 독서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 교육계와 언론계는 물론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독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독서는 시공간의 이동이 자유롭고 사고력을 발달시켜 줄뿐만 아니라 경험의 폭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등 독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강조하여 독서의 의식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독서를 해야만 인간답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관념이 국민 전체에게 의식화되어야 한다.²¹⁾

가까운 日本의 경우 국민 독서생활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讀賣新聞, 朝日新聞, 毎日新聞, 東京新聞, 産經新聞 등의 주요 일간지 1면 광고란에는 광고료를 저렴하게 책정하여 신간 도서 광고를 위한 지면으로 할애하고 있다. 그것도 단 하루나 특정기간만이 아니라 365일 도서 광고밖에 없다는 사실이 놀랄만한 일이다. 우리나라 주요 일간지의 1면 광고란에는 기업광고나 성명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日本에서는 출판사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다. 그리고, 日本에서는 사시사철 독서를 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독서주간이니 독서의 계절 등은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이 언론과 매스컴이 앞장서서 독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국민은 독서습관이 형성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독서량이 훨씬 많은 편이다.²²⁾

따라서, 언론과 매스컴은 물론 가정, 학교, 사회 등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독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독서생활화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5. 독서흥미 유발

모든 행위는 즐거움과 재미가 있어야 그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듯이 독서 또한 흥미가 있어야 독서생활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다.

19) 국민독서실태조사 2002(서울 : 문화관광부, 2002), p.142.

20) 平井祥雲, 行動のための 讀書論(東京 : 山喜房佛書林, 1985), p.143.

21) 宋錫熙, “讀書의 生活化,” 문교경북, 제87호(1986), p.53.

22) 이규형, J. J가 온다(서울 : 해냄, 1998), pp.89-91.

독서의 생활화를 위하여 독서흥미를 유발시켜 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아동의 인식의 발달은 언어능력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4~5세까지 그림책에 대한 흥미를 기르지 못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은 讀字力이 있어도 독서흥미가 진전되지 못하게 된다. 독서흥미가 수반되지 않는 독서는 강제적인 독서가 되고,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면 오히려 독서활동을 저해하게 되어 독서습관 형성에 지장을 주게 되는 것이다.²³⁾

독서흥미는 독서습관의 형성과정을 내면에서 지지하기 때문에 아동이 현재 가지고 있는 독서흥미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독서자료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독서활동 자체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결국, 독서의 즐거움과 기쁨을 가슴깊이 느끼는 것이 습관화에 유리한 원동력이 된다.²⁴⁾

그러면, 독서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방안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²⁵⁾

- ① Storytelling을 실시한다.
- ② 아동이나 학생들의 관심사에 대하여 문답이나 대화를 통해서 독서흥미를 증진시킨다.
- ③ 독서흥미 발달단계에 알맞은 도서를 선정하여 일부분 또는 전체를 읽어 주거나 읽도록 한다.
- ④ 소품이나 견학 등의 방법으로 실제로 접해 보지 못한 내용을 경험시킨 후 새로운 경험을 독서를 통하여 보충하거나 의문을 풀게 한다.
- ⑤ 구두, 게시판, 방송, 신문, 전시, 시청각자료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서소개를 한다.
- ⑥ 도서의 내용을 연극이나 인형극 등의 방법으로 극화시킨다.
- ⑦ Book talk를 실시한다.
- ⑧ 독서표창제도를 실시한다.
- ⑨ 독서퀴즈를 실시한다.
- ⑩ 독서관장표를 다양하게 만들어 배포한다.
- ⑪ 독서감상문, 독서노트, 독서일지 등을 기록하여 모아 두는 습관을 기른다.
- ⑫ 독서습관형성에 필요한 독서기술과 태도를 육성시킨다.

이외에도 학교에서는 학교도서관이 중심이 된 독서캠페인을 실시하여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독서흥미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독서감상문 발표대회, 독서감상화 그리기 대회, 독서여행 등 다양한 독서행사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3) 滑川道夫, “讀書習慣의 形成,” 新讀書指導事典(東京: 第一法規, 1981), p.128.

24) 上掲書, 同面.

25) 李京植, 새로운 讀書指導: 讀書에 의한 어린이의 人格形成(서울: 集文堂, 1976), pp.54-56; 金京一, 讀書教育論(서울: 一潮閣, 1980), pp.184-196; 讀書指導研究會, 讀書指導事典(서울: 京仁文化社, 1976), pp.306-312; 平井祥雲, 行動のための 讀書論(東京: 山喜房佛書林, 1985), pp.150-152; 野地潤家, 藤原宏, 室伏武, 讀書指導實踐事例集(東京: 第一法規, 1978), pp.3034-3175를 綜合한 內容임.

VI. 요약 및 결론

지식정보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수단이 되는 독서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렇게 독서행위를 통하여 과제해결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능력이 중요한 사회가 되면 이러한 능력을 신장시켜 줄 수 있는 독서교육이 필수적인 교육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 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독서교육은 크게 두 가지 영역 즉, 정서순화와 가치관 확립을 위한 독서와 지식정보사회가 요구하는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학습독서를 적절하게 혼합한 형태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② 독서교육을 특정 교과목의 하부영역이나 일부분으로 취급하지 말고 범교과의 학습능력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하겠다.

③ 독서교육은 여가선용이나 교양위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교과학습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어 독서가 교육과정상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학습독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독서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등 독서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동기부여가 이루어질 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⑤ 가정과 학교는 물론 각종 도서관에는 다양한 독서자료를 풍부하게 비치하여 독서에 대한 환경적인 자극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끝으로, 모든 행위는 즐거움과 재미가 있어야 그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듯이 독서 또한 흥미가 있어야 독서생활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독서흥미 유발에 노력하여야 하겠다.

참고문헌

- 金京一. 讀書教育論. 서울 : 一潮閣, 1980.
- 김득순. “학교 독서교육의 현황과 과제.” 학교 독서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 대한출판문화협회, 1998(제14회 출판포럼)
- 김미량. “정보화 사회의 독서매체 확장을 위한 一考.” 독서연구(한국독서학회), 제5호 (2000), pp.65-81.
- 김양희, 김영자. 작가·작품의 고향을 찾아서 떠나는 즐거운 문학수업. 서울 : 성림, 2001.

- 김영자, 이영숙. N세대 퍼즐독서. 서울 : 성림, 2000.
- 김영진. 책 읽는 사람이 세계를 이끈다. 서울 : 웅진출판, 1995.
- 김정진. 독서불패 : 위대한 독서광들의 성공스토리. 서울 : 크레앙, 2001.
- 讀書指導研究會. 讀書指導事典. 서울 : 京仁文化社, 1976.
- 밝은 세상 사서모임. 열린학습을 위한 교과관련 도서 안내집. 군포 : 밝은 세상, 2000.(초등학교 1·2학기)
- 宋錫熙. “讀書의 生活化.” 문교경북, 제87호(1986), pp.49-54.
- 野地潤家, 藤原宏, 室伏武. 讀書指導實踐事例集. 東京 : 第一法規, 1978.
- 에너 킨들런. 독서가 어떻게 나의 인생을 바꾸었나? 임옥희 역. 서울 : 에코리브르, 2001
- 연은미. 학교도서관의 독서교육 프로그램 모형개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1996.
- 윤정국, 고미석, 김광원. 명저의 고향. 서울 : 비룡소, 1994.
- 李京植. 새로운 讀書指導 : 讀書에 의한 어린이의 人格形成. 서울 : 集文堂, 1976
- 이규형. JJ가 온다. 서울 : 해냄, 1998.
- 이재승. “정보화 사회와 독서교육.” 독서연구(한국독서학회), 제5호(2000), pp.83-104.
-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利用指導委員會 編. 自學能力を高める學校圖書館の利用指導. 東京 :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1982.
- 丁鍾鎭. 動機와 學習. 서울 : 星苑社, 1991.
- 조영식. 창조적 독서교육 : 창의성을 신장시키는 열린 독서지도. 서울 : 인간과 자연사, 1999.
- 阪本一郎. “讀書における 道德的 感銘.” 讀書科學, 第2卷, 第4號(1958. 3), pp.1-8.
- 平井祥雲. 行動のための 讀書論. 東京 : 山喜房佛書林, 1985.
- 한국문인협회 충남지회. 충남 문학기행 지도. 대전 : 대교출판사, 1997.
- 滑川道夫. “讀書習慣の 形成.” 新讀書指導事典. 東京 : 第一法規, 1981. pp.127-128.